



오랜 세월 북한산 중턱에 '문수성지'를 일군 혜정 스님은 항상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이라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 하다고 해도 흐르는 시간의 부지런함을 당할 수는 없지.”

몇년전 혜정 스님을 뵈러 북한산을 올랐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스님을 찾아가는 산길은 변함이 없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분홍의 웃음 입을 전달해가 산을 오르는 이들을 반긴다.

터벅터벅 가파른 산길을 걷는 등산객들은 거친 호흡을 잊은 듯 웃음이 반발한다.

서울 구기동을 출발한지 한 시간이, 거의 정상에 이르러서야 문수사 경내에 들어섰다. 흙진 땅에 짓고 난 뒤였다. 서울시내를 발 아래 둔 문수사에 오르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5년여가 지났을 뻔인데 문수사는 참 많이도 변했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문수사의 모습도 이러했

을까. 수많은 영험설화를 갖고 있는 문수영굴(文殊靈窟)은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다. 대웅전, 나한전, 삼성각 등 전각들은 가파른 암벽을 절묘하게 이용해 들어섰다. 그러면서도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산과 하나가 된 문수사를 보는 등산객들은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등산객들과 스스럼없이 차담

문수사를 찾은 등산객들은 처마 밑에 잠시 짐을 풀어놓았다. 산을 오른 뒤 느끼는 벽천 중만을 만끽하는 중일 것이다.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져버린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 혜정 스님과 맞닥뜨렸다. 인사할 틈도 없이 대뜸 묻는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산에 봄잔치 가득하지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한 시간이 조금 남게 걸렸다고 답하자, 스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봉(봉) 없는 봉(봉)’을 내려준다.

“고생했어, 쉬었다 내려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막무가내 찾아온 답답지 않은 손에게 내린 ‘발칙’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주변에서 쉬고 있는 등산객을 보고는 금세 미소를 머금고 먼저 말을 건넨다.

“산에 봄 잔치가 가득하지요? 저토록 소리없이 제 할 일을 해 나가는 산이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실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등산객들과 차담을 나누는 일은 스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산중 기도생활에 주석하는 스님이 개발한 비장의 포교법이다. 산도 볼도 세상사도 스님의 법담을 피해갈 순 없다. 북한산을 자주 찾는 이들은 문수사를 꼭 거쳐 간다.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맑힐 수 있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볼서 보시

혜정 스님은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심이 후한 탓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문수사 공양간은 늘 북적거린다. 물을 얻어 마시러 왔다가 밥까지 덤으로 먹고 가는 이들의 얼굴엔 흐릿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스님의 하루는 뭇중생이 깨어나기 전인 새벽 3시 도량석과 예불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나라와 중생을 위한 관음기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세간보다 일찍 등이 뜨는 신허리지만, 문수사를 깨우는 북한산은 아직도 어둠을 벗지 못했다.

불일이 있어 외출해도 혜정 스님은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소를 가리지 않는다. 머물고 있는 자리가 곧 법당이다. 여행을 하거나 법문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라도 적당한 정소를 찾아 예불과 기도를 올린다.

스님은 책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매번 볼서를 보시한다. 산을 내려가서 하는 일 중에 볼서를 고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매일 볼서

구입 비용만도 70여만원에 달할 정도다. 그러고도 스님은 책을 보시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흘러나온 얘기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보시와 무소유의 당부를 빼놓지 않는다. 이날 찾아온 김수장 변호사에게도 무소유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문수사 사적기 만드는데 온 힘

“구하는 바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네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서적을 뒤져 <고려사>에 등장하는 문수사 관련 기록을 찾아냈던 스님은 요즘 사적기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고려시대 탄연국사가 창건하고 조계종의 증흥조 태고보우국사가 주석했던 도량인데도 어엿한 사적기 하나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산중생활 틀틀이 자료를 모으는 스님의 노력은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문수사 기도성지로 일귀

혜정 스님은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혜정 스님은 1958년 함천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 마산 성주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은사 청담 스님으로부터 인욕의 가르침을 받았다.

1983년부터 북한산 중턱에 있는 서울 문수사에 머물며 문수사를 중창해 우리나라 3대 문수성지로 사격을 갖추어 놓았다. 스님은 평소 책을 좋아하고, 어려운 이들이나 사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자비보살로 유명하다. 또한 자가용이 없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겸손한 수행자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스님은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예불을 올린다.



등산객에게 늘 풀어주는 법문을 들려주는 일은 스님의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먼저 다가서는 스님의 모습은 인자한 아버지를 닮았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문화공연 및 제등행진

봄이 오는 소리 희망을 돋우는 소리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일시 : 2006년 4월 29일 (토) 17:00~22:00

장소 : 관성회관 야외음악당 (우천시 관성회관)

주최 : 육천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육천불교경년회 (회장 정영철, 018-421-2870)

출연진 : 은을 담은 소리꾼 장사의 인간문화재 법우 스님 초청 공연,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초청 공연, 속전-심인합동합창단



봄은 따스한 희망입니다. 봄이 오면 나뭇가지는 푸릇푸릇 5월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매년해오던 제등행사와 더불어 문화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봄이 오셔서 마음 한켠에 희망 하나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란 생각까지 놔야 ‘인욕’



누구에게나 보시와 무소유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혜정 스님.

혜정 스님의 가르침

나의 산방(山房)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책 몇 권과 텀 빈 공간 뿐이지요. 그러면서도 산방은 꼭 찬 곳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 있고, 그 빛은 색깔이 없으며, 색깔이 없으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사유(思惟) 없이 어찌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을 많이 내면 앎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강원에서 공부할 때 “한 번 진심을 내면 뱀의 몸을 받는다(一起喚心受蛇報)”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온 터였지요.

금강산 외금강 신계사 부근에 돈도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구니스님들이 살고 있었어요. 흥도(弘道)라는 스님이 이곳에 당도해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모래 위에 온 몸뚱이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니다.

그 글의 내용은 진심을 내지 말라는 경구였는데, “나는 진심을 한 번 낸 죄의 대가로 지금 뱀의 몸을 받았으니 내 글을 적어다가 계장(戒藏)을 삼아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경계의 글이었습니다.

幸逢佛法得人身(행봉불법득인신)
多劫修行近成佛(다겁수행근성불)

松風吹榻眼中英(송풍취탁안중시)
一起喚心受蛇報(일기진심수사보)

다행히 사람몸 받아 불법의 행운 만나서 다급에 수행하여 성불에 가까웠어라 술버림이 붙어와 눈에 티가 들어가서 한 번 성을 냈더니 뱀의 몸을 받았네

寧碎我身作微塵(녕쇄아신작미진)
誓不平生一起喚(서불평생일기진)
願師還都闍浮提(원사환황엄부제)
說我形容戒後人(설아형용계후인)

차라리 내 몸을 가루로 만들지라도 맹세코 평생에 진심 한 번 내지 않으리니 원컨대 스님께서 염부제 돌아가시거든 나의 물갈을 말해서 뒷사람을 경계케 해주오

흥도 스님의 일화가 어느 연대의 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회화적 결과로 후세를 경각시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舍情口不能言語(함정구불능언어)

以尾成書露真情(이미성서로진정)
願師書寫能壁上(원사서사태벽상)
欲起喚心舉眼看(욕기진심거안간)

뿔은 품었으나 말로 능히 못하노니 꼬리로나마 글을 써 진정을 말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 이 글을 벽에 걸어 화가 날 때마다 쳐다보소서

온 몸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는 내지 말아야겠다. 진심은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자비심과 보리심을 발해야 하거늘, 하물며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저의 은사인 청담 스님은 제자들에게 인과를 철저히 믿고 인욕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화가 나겠지요? 아마도 청담 스님은 맞을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때린 것이니 인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냄은 어리석은 일

남 탓 말고 나를 봐야

자신이 지은 인과의 업은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일을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일어나는 감정을 참는 것이 인욕은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까지 다 놓아버려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함니다.

‘National’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1894~1989)는 마쓰시다전기를 일군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마쓰시다는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실패로 초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하고 생업현장에 뛰어든 만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전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마쓰시다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그동안 부유한 생활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니, 아버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후 그의 아들은 마쓰시다전기가 아닌 다른 기업에 취직을 했고, 마쓰시다는 회사와 사재를 모두 직원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런 기업가, 이런 불자가 되어야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2>



효과있게 법문 듣는 법

초심자를 위한 강의의 하러 다니는 저 역시도 공부할 게슬리 해서는 안 되겠기에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때면 강의를 들을 때마다 깜빡 깜빡 놀랍니다.

내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했는지 내가 그토록 궁금해 하던 내용들을 아주 꼭집게처럼 집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 저 선생님의 강의는 오직 나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음번 강의를 기다려지는 것은 무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저 덤덤하게 법문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은 ‘지금 부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라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일 테지요. 그렇지만 법문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뭔가

다음 (주1)

이항경과 같은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슬하게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묻고 대답하고 되묻고 대답하고...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문답으로 주고받은 뒤에는 밖에 나가서 전혀 편소리를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불러들여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해가 저서 선천한 바람이 불어오면 부처님 앞으로 모여 앉아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가 좌선을 하다가 이런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서 낮 동안 궁금했던 점을 풀어놓은 뒤에 부처님의 설명이 배풀어지면 소중히 받아 지닌 뒤에 또 다음날 종일 그 대답을 곰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일으키고 대답을 생각하고 다시 스승이나 선배에게 질문을 토해내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일’과 같은 것은 그렇게 곰곰 깊이 생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찾아지고 길이 보이는 법

궁금한 게 뭔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얻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보다 나은 이에게 물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저 잠에만 빠져 정진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사람에게 큰 지혜를 이루게 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치 물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잠을 탐하지 않고 정진할 뜻을 가지는 것이다.”(증일아함경 10권)

나보다 나은 이에게 이치 물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지 말고 자꾸 물어보라는 말이 됩니다.

서양의 학자도 질문에는 일곱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질문의 7가지 힘〉 도로서 리즈

요즘 시중에는 참 많은 법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법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방에서 홍수처럼 팔 팔 쏟아지고 있는 스님들의 법문과 불교학자들의 강의를 조금도 어려움 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지, 딱 한 마디로 불교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울상을 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각자의 가슴속에 물을 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이 무얼 궁금해 하는지 먼저 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찾아지고, 길이 보입니다. 질문을 안고 법회에 참석하는 순간 스님의 법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 열리진 피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1) <생산적 책읽기 50> 안상현 지음, 북포스, 55쪽에서 재인용하였음.

■ 이미령(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법비오는곳 동해사에 기도오세요
(기도비 없음)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소요

매년 양력 10월~11월20일 까지 밤, 낮없이 부처님 사리탑 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해 있는곳.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성취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주지스님이 직접 기도 및 축원발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예약전화 : 033)672-2900

법비오는 곳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론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수명이 길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청사조명 및 조종 같이대

연 등 (정품)
법당명(금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